

##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초서의 위치<sup>1)</sup>

— The Parson's Tale, Retracciouns의 작중 의미를 중심으로 —

김 대 환

### I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에서 “본당 신부의 이야기(The Parson's tale)”와 그 이야기 끝에 붙어 있는 초서의 “철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 논란은, 패터슨(Lee W. Patterson)이 “The ‘Parson's Tale’ and the Quitting of The ‘Canterbury Tales’”에서 지적한 대로, 본당 신부 이야기의 장르 문제와 본당 신부 이야기가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 문제로 나뉠 수 있다(패332-3).<sup>2)</sup> 패터슨은 이 글에서 본당 신부 이야기가, 그저 ‘전형적인 중세 설교’가 아니라, 카톨릭에서 고해 문제가 크게 대두하여, 고해할 죄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해 안내 논설(the penitential treatise)’의 성격을 띤 설교문임을 밝힘으로써 장르의 문제는 잘 해결하고 있지만, 본당 신부 이야기가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주제 면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게 처리하고 있다.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속시원한 해결책이 없었던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패터슨은 본당 신부 이야기의 주제 면의 역할에 대한 종래의 입장들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했다(패333). (1) 본당 신부 이야기의 도덕적 절대주의는 이미 다른 이야기들에서 함축되어 있다가 여기서 완전한 표현과 권위를 얻은 것이다. (2) 본당 신부 이야기는 이전에 지나간 것들에 대한 회고적 주석이며 이야기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여기에서만 도덕적 판단의 측면에서 재조정해야 한다. (3) 본당 신부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들을 지배하는 해학적이고 극적인 규범들(the comic and dramatic norms)의 지배를 받으며, 그 이야기의 도덕적 절대주의는 캔터베리 이야기의 다종다양한 목소리들 중 하나일 뿐이다. (4) 스타일과 제재상 본당 신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과 너무 다르고, 본당 신부 이야기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전기적인 것이며, 이야기들의 결론으로서 본당 신부 이야기는 문학적 가장(literary seemliness)의 관습을 목적으로 한 경건한 제스처일 뿐이다.

결국 이 입장들은 본당 신부의 이야기가 캔터베리 이야기 내에서 초서의 본심을 나타내면서

1) 이 글을 쓰는 데는, 95년 1학기의 중세 영문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논의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신광현 선생님의 미발표 논문 “철회의 알레고리와 알레고리의 철회”를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2) Lee, W Patterson, “The Parson's Tale and the Quitting of The ‘Canterbury Tales.’” Treditio 34(1978): 332-3. 앞으로 패터슨의 이 글에서 인용할 때는 이 글을 ‘패’라고 약칭하고 페이지 수를 뒤에 달겠다.

다른 이야기들은 아우르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입장과, 본당 신부의 이야기 역시 작품 내의 극적 맥락의 제한을 받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당 신부의 이야기가 독보적이라는 입장은 그 독보성의 정도에 따라 (1)과 (2)로 나뉘지고, 극적 맥락의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본당 신부 이야기의 권위를 떨어뜨리나에 따라 (3)과 (4)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이 주제 면의 문제는 결국 이 본당 신부 이야기와 첼회에 대해서 초서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겠다.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작품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화자이자 등장 인물인 작중(作中) 초서와, 작품 내부의 정황적(情況的) 맥락을 주는 힘으로서의 작가 초서, 그리고 중세를 살았던 실제 인물로서의 인간 초서 사이의 거리 문제다. 패터슨은 이 문제에 별로 유의하지 않고, 세 초서를 동일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결국 (1), (2)에 가까운 것으로 놓은 꼴이 되고 말았다. 패터슨이 이렇게 본 데에는 그가 처음에 본당 신부 이야기의 장르 문제를 다루는 데서, 결국 이 고해 안내 논설을 만든 것이 초서라는 생각에 치우쳐, 초서가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 라고 하여, 인간 초서와 본당 신부를 거의 동일시한 데서 시작하여, 뒤에 가서는 작중 초서와 작가 초서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본당 신부 이야기를 쓴 것은 초서지만, 이 글이 본당 신부의 이야기 부분과 첼회 부분만 따로 독자적인 소책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엄연히 *켄터베리 이야기*라는 극적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인 한, 이렇게 쉽게 작중 초서와 작가 초서를 동일시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따라온다.

패터슨처럼 이 세 초서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은 이야기하는 자와 이야기의 관계 즉, 작품 내의 각 담론과 목소리가 어떻게 상호 제한 속에서 작용하면서 자리잡는지를 보기 어렵게 한다. 패터슨의 의견대로, 작중 초서와 작가 초서와 인간 초서가 같은 견해를 피력하는 동일 인물로 볼 때, 본당신부(Parson)의 이야기와 초서의 첼회는 인간 초서와 작가 초서의 견해가 되고, 본당신부의 이야기는 다른 화자들에 의한 *켄터베리 이야기*들 전반에 대한 메타 비평이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셈이며, *켄터베리 이야기*는 아주 단일한 해석만이 허용되는 종교 교리서가 되는 셈인데, 그렇게 볼 때 얼른 눈에 띄는 의문점만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해놓고서 그런 이야기들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이라고 하는 셈인데, 그 쓸데없다는 주장 한 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본당 신부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인가? 작중 초서가 “*켄터베리 이야기*들 중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부분들”을 첼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첼회인가?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부분들”은 작품 속에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첼회하는 셈이 되는 이런 첼회는 전혀 첼회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인간 초서는 결국 정치적으로 교권에 대립되는 세속권력을 대변하는 궁정에 소속되어 궁정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고 그 자신도 교권보다는 세속권력을 옹호하는 쪽이었을 텐데, 그렇게 쉽게 세속적인 부분들을 폄하하고 교권에 승리를 안겨주는 첼회를 할 수 있었을까?3) 우선 떠오르는 이런 의문들로, “작가 초서 = 작중 초서 = 인간 초서”라는 등식을 흔들리게 하여, 이 세 초서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와, 본당 신부의 이야기의 의미와 초서의 첼회의 의미를 다시 점검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 재점검에서 일차적인 작업은 작중 초서의 성격 규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설사 작중 초서의 첼회가 원칙적으로 작품의 극적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작중초서가 어떤 인물이기에 첼회를 하게 되며 작가 초서는 작중 초

3) 당시 궁정 문학에서는 간통에 가까운 사랑 이야기가 널리 애독되고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본당 신부 이야기의 메마른 도덕성을 환영하는 이야기가 아님은 물론이다.

서의 인물됨과 어떤 거리를 취하고 있는가가 밝혀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작업이 등한시되고서, 단순히 해학적이고 극적인 규범들과 문학적 가장의 전통만으로 설명한다면 작품의 맥락(context)이 또 다른 이름으로 무시될 수 있는 것이다. 작가 초서는 작품 자체의 극적 맥락을 이루는 힘이므로 이야기들과 이야기를 진행하는 정황들을 살펴보면 될 것이고, 인간 초서는 여러 전기적 사실들을 참조하면 될 것인데, 작중 초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를 작품 속에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이 작업이 없으면 이 세 초서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중 초서의 성격이 규명되었을 때, 우리는 세 초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작품 의미 형성에 유의함으로써, 작가 초서의 진정한 입장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II

작중 초서는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의 화자이기도 하므로 “총서시(general prologue)”에서부터 등장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작중 초서가 여러 순례객들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monk)에게 상당히 감탄하며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sup>4)</sup> “수사의 이야기 서시(The Prologue of the Monk’s Tale)”에서도 순진한 작중 초서는 Host에게 점잖게 대하는 수사를 “This worthy Monk”(The Prologue of the Monk’s Tale I, 1965)라고 찬탄에 가까운 시선을 보낸다. 사냥꾼 수사가 중세의 풍자문학의 주요 표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것은 작중 초서의 순진 무지함뿐 아니라 문학적 미숙성까지 암시한다. 이런 문학적 미숙함은 Sir Thopas 이야기에서 매너리즘적으로 형식을 반복하는 재미에만 골몰하는 데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작중 초서 이야기의 서시(The Prologue and Tale of Sir Thopas)에는 작중 초서가 어린애 같은 용모로 묘사되어 있고, 그의 두 이야기 중 Sir Thopas의 이야기는 문학 형식에 탐닉하는 취향과 어린애 세계에 경도된 의식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가 묘사하는 Sir Thopas의 행동은 꼭 어린애가 소꿉장난하는 듯이 움직이며, 이런 표현을 즐기는 작중 초서 역시 유아적인 경향이 있음을 암시하여, 다시 한번 그의 순진 무지함(naive)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Melibee의 이야기의 내용으로 볼 때 그가 상당히 종교적 교리에 심취해 있고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순박한(naive) 초서는, 인간 초서가 작가 수업의 도상에 있을 때의 미숙했던 지난 날의 초상으로서의 성격과, 미숙한 독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미숙한 독자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은, *캔터베리 이야기*들을 이 미숙한 초서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중대한 경고로서 작품 속에 내장되어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작중 초서는 총서시에서 본당 신부를 좋게 보고 있고, Melibee의 이야기에서, fable과 action이 최소화되고 인용과 교훈 위주의 진행으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본당 신부의 이야기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그리고 작중 인물 초서가 사냥을 즐기는 결합이 있는 인

4) “총서시” 165-207. 앞으로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인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이야기를 구분하는 말이나 Fragment의 숫자를 로마자로 적고 옆에 행수를 적어서 표시하겠다. *캔터베리 이야기*의 텍스트는 Larry D. Benson et. als. ed, *The Riverside Chaucer*(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을 사용했다. 이 책의 인용문의 한글 번역은 “*캔터베리 이야기 I, II*, 김진만 역(동서문화사, 1978)”을 사용하되 필요하면 이 글의 문맥에 맞게 수정한다.

물인 수사를 훌륭한 인물로 보고 있는 점은 그가 권위적인 인물에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작중 인물 초서가 이렇게 권위에 약하고 권위적인 담론을 좋아하는 점은, 너무도 순박하게 본당 신부의 이야기에 넘어가서 철회를 한다는 점과도, 작품 속의 정황이란 극적 맥락에서, 자연스레 연결되는 것이다. 작중 초서는 Gulliver만큼 '순박한' 화자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순박한[naive] 화자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점에 유의할 때, 초서의 철회 역시 세 초서 공통의 의견이 아닐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이 초서의 철회의 의미를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이 철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본당 신부의 이야기와 본당 신부의 인물됨을 점검해보자.

먼저 본당 신부의 인성은 포괄적인 인성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는 두 극 중 한 극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이성 내지 지성, 도덕(the moral), 교훈(the sentence)의 성향, 그리고 놀이에 대해 반대하는 성향이 있음을 본당 신부 이야기의 서사에서 알 수 있다. 그의 이야기에서 그는 감성이 이성의 조작에 따를 것을 주장한다. 그의 이야기도, 패터슨이 지적했듯이(패347), 감성(the heart)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이성(the head)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런 점은 그의 이야기가, 인간 존재의 총체적인 淨化 내지 변형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점과, 작품 속의 다른 목소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 속에서 절대적이지 않은 상대적인 위치를 점할 것이라는 암시를 받게 한다. 이러한 상대성은 본당 신부 이야기에 작품의 다른 부분이나 다른 이야기들과 많은 메아리가 있다는 것과 관련이 된다. 패터슨이 지적한 것만도 설교술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신성모독이나 맹세에 관한 부분, 귀족성(gentility), 결혼에 관한 언급 등 5개의 단락들이 *켄터베리 이야기* 내의 다른 이야기들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패357).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그 부분이 *켄터베리 이야기*라는 극적 맥락 속에서 위치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비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동시에 역으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 비판당하는 것일 수 있다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본당 신부의 이야기가 상대적인 제한을 받는 이야기라는 것, 즉 그 이야기가 절대적이고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본당 신부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체 모순을 보인다는 데서 더욱 강화된다. 이런 모순들은 *켄터베리 이야기* 내의 맥락에 나타나는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과 대조되어 본당 신부 이야기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 담론의 힘을 제한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면을 본당 신부 이야기 자체의 모순과 균열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와의 관련을 따져가며 점검해보자.

패터슨이 예를 든, 본당 신부 이야기가 세부항목에서 실패한 점들에는 이런 것이 있다. 즉, 단어의 착오, 항목들에 자리 매김이 잘못된 것 — 말다툼이 오만의 죄에 포함(406),<sup>5)</sup> 다른 여섯 가지 무거운 죄의 서술 구조와는 다르게 나태의 구체책이 나태의 설명에 포함된 점(689-90, 712-3) 등 —, 몇몇 서두의 도입부의 잘못 — 정신적 살인이 여섯 가지라고 했다가(565) 세 가지만 제시 —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 좋은 고해의 조건들(982-1927) 설명에서 처음에는 4가지라고 했는데(982) 실제로는 15가지의 세부 조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패터슨은 이런 실수들은 개념의 잘못이라기 보다 실행의 잘못이며, 성급함과 부주의의 소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초서가 기존의 논설을 종합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실수

5) 본당 신부의 서사와 이야기는 이처럼 간략하게 행수만 괄호 속에 표시하겠다.

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잘못들은 현실을 자기 측의 이데올로기로 독점하려는 편향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패터슨이 지적한 실수들도 본당 신부가, 순수하게 현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편부당하게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특정 이데올로기 안에 선불리 집어넣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인간 이성과 교회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열거법과 기원론을 과다하게 늘어놓아서 자기의 논리가 질서 정연하고 합당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다가, 자기가 만든 구조와 내용에 자기가 치이는 모순을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선부른 이데올로기화는 본당 신부가 죄의 기원을 얘기하는 데서도 암시된다. 죄의 기원론에서 그는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의미를 짓혀두고 남성/여성, 이성/육체의 이항대립 구조를 만들어서, 이성이 육체를 지배해야 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한다는 이성 중심적 가부장적 지배-종속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선악과가 인간의 자아의식을 상징하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판단과 자아로 세상을 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원초적인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라는 생각은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관심 있게 다루는 부분일 수 있는데, 본당 신부는 이런 성경의 심오한 의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죄의 기원에서 너무 성급히, 가부장적 이성 중심적 편향에 기반한 보수적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끌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패터슨이 지적한 “설명의 중대한 문제점”을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패터슨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된다. “죄를 무효로 만드는 일 세 가지에 대한 설명(95-100)이 너무 혼란스럽고 참회의 나무의 이미지(113-27)는 많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그 나무에 ‘fruyt of Satisfaccioun’이 있다고 했지만 초서도 알다시피(308-13) 참회를 효험이 있도록 하는 것이 속죄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 나중에 가선 ‘the fruyt of penance’가 ‘the endles blisse of hevne’(1076)라고 한다. Nebuchadnezzar의 꿈속의 나무를 참회의 나무로 해석했는데 다니엘 자신을 그것을 왕의 허영심으로 해석했다”(패 352). 이런 잘못은 본당 신부가 fable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fable적인 비유는 버리지 못했다는 모순을 나타냄과 동시에,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비유적 언어 — 즉 fable — 를 버리고 한 말에 한 뜻을 고착시켜 sentence化를 이루려는 그의 노력<sup>6)</sup>이 실패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비유의 언어인 성경과 한 말에 한 뜻을 고착시키는 개념의 언어를 지향하는 본당 신부 이야기의 충돌로 인한 이런 균열은 교구 목사 설교가 처한 핵심적 사건이다. 본당 신부 이야기 서사에서 본당 신부가 인용한 바울의 말도 본당 신부 식의 협소한 언어관과 문학관으로 해석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그 부분을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자.

Preach the word; be instant in season,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all long-suffering and doctrine./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after their own lusts shall they heap to themselves teachers,

6) 본당 신부가 이런 노력을 하게 된 데에는 본당 신부 전까지의 이야기들이 fable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확정된 sentence를 전달하는데서 거의 다 부적합했다는 데 대한 불만이 배경이 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fable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sentence에 충실할 것 같은 언어, 즉 한 말이 한 뜻으로 통하는 언어, 다시 말해서 마치 수학이나 자연 과학의 언어같이 뜻이 고정되는 언어, 논설적인 언어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having itching ears:/And they sha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shall be turned unto fables./But watch thou in all things, endure afflictions,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make full proof of thy ministry. (2 Timothy 4.2-5)<sup>7)</sup>

교구 목사는 이 부분을 비유의 언어(fables)를 버려야 되는 것으로 해석<sup>8)</sup>했으나, 사실은 이 말은 비유의 언어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바로 그 앞에서 바울이 성경의 진실함을 강조한 점을 상기할 때, 성경과 같은 진실한 비유의 언어에 귀기울이지 않고, 허황된 비유(fables)에 귀기울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더 합당하다. 결국 본당 신부의 서시에서 본당 신부는 바울의 말을 쫓아서 비유담(fable)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언뜻 그리스도의 정신에 부합되는 듯이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비유담가였고 성경은 비유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비유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중들을 상대로 교화를 펼쳤던 주요 수단이었다. 그러면 굳이 본당 신부가 fable을 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본당 신부는 fable을 말하지 않는다고보다는 fable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다. 즉 본당 신부는 본당 신부 이야기의 서시에서 시의 운율에 대한 인식과 능력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준 것과 같이, 비유의 언어 전반에 대해서도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fable적인 언어, 즉 비유의 언어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애용한 비유의 언어, 상황적 언어를 버리고 개념적 언어를 쓰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비유의 언어를 인용하게 되고 — 비유의 언어로 충만한 성경을 그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 그 비유의 언어가 개념적 언어의 틀을 와해시키는 자체모순을 드러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서 본당 신부가 나무와 열매를 한 개념으로 고정시키는데 실패하는데 이는, 그가 성경을 인용하는 한, 한 말이 정황에 따라 여러 의미로 쓰이는 성경의 비유적 언어, 즉 정황 언어를 피할 수 없음을 날카롭게 드러내주는 부분인 것이다. 말은 정황에 따라 그 의미가 규정되는 사건이지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는 진실, 즉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황 언어라는 진실을 애써 피하려는 본당 신부는, 자신의 권위를 위해 정황 언어로 충만한 성경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자기 모순 때문에, 언어와 문학에 대한 자기 관점이 편협된 것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본당 신부는, 인생과 영적 진리를 통찰하는 현자라기보다는, 고지식하게, 관념적인 교리만을 뒤쫓는 마른 똥막대기 같은 사람<sup>9)</sup>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사슴(Lecherie)에 대한 부분에는 이야기가 별로 설득력이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

7) 성경은 인용은 1611년에 편찬된 King James Version을 사용한다.

8) 교구 목사는 fable로 충만한 성경을 인용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성경 이외의 fable이 들어오는 것도 피하지 못했다. 학생에게 매질을 하려는 선생에게 선생이 화를 낸 잘못을 학생이 따져 학생에게 반성하게 한 대목은 결국 비유담이다(670-3). 물론 이 부분은 본당 신부 설교에서 거의 유일한 비유담이다. 비유담이 하나 뿐이라는 것은, 그가 비유를 피하고 sentence지향적인 언어로 일관하려 한 노력을 보여주면서 비유에 대한 능력의 결여를 은근히 암시하며, 비유담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은 그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9) 마른 똥막대기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지만, 그 중 한 의미만 말하자면, 매마른 도덕률로 냄새를 안 풍기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구린내를 풍길 이데올로기가 말라 붙어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본당 신부 동생이 “똥장군을 한없이 저 나른 능숙한 농군(총서시530)”임은 이런 맥락에서 기묘한 웃음을 자아낼 수도 있다.

이성의 동의를 없는 생리적인 몽정 — 즉 채액의 부실에 의한 몽정 — 도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912). 이는, 죄의 기원에서 이성의 동의를 있기 전까지는 순결하다고 한 말(332)과 모순되며, 이렇게 몽정의 죄를 확대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교회의 노예가 되게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일부 일치를 장려하면서 일부 다치는 거론하지 않고 일처다부 적인 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922-4)에서는, 가부장적 편향을 보인 것은 적혀두고라도,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는 여자는 그날부터 받는 사랑이 덜하게 될 것이다(924)”라는 얘기가 엉뚱하게 끼여들어오는 것 역시, 본당 신부 이야기가 역지로 자기 체계에 현실을 끼워 맞춰서 권위를 유지하려는 성향에서 나오는 균열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당시에 교회측에게는 고해가 세속적 담론을 주요 기제였던 만큼, 고해의 필요성을 과도하게 만들려는 데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균열은 본당 신부 이야기가 불편 부당한 얘기, 인생에 대한 진실한 서술이라기 보다는 교권과 세속권의 싸움에서 나오는 이데올로기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다. 고해하는 자와 고해 받는 자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소환리의 이야기(The Summoner's Tale)에 나오는 탁발 수사와 영주와의 불편한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음을 보아온 독자에게 이런 부분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될 수 있는 한 사람들은 죄인으로 만들어 고해를 받아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패터슨도 인정했다시피 본당 신부에게는 여자는 아내 외의 존재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패364). 본당 신부는 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한 기독교적 가부장적 편향을 보이는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가 서로에게 진 육체의 빛을 갠기 위해서”(939) 육체 교섭을 할 경우 “비록 그것이 싫고 그러한 욕망이 마음에 없더라도, 남편에게 진 육체의 빛을 갠 여자는 정절의 미덕을 가졌다”(940), 여자에게 진 육체의 빛을 갠 해서 남편이 하고 싶지 않은 데도 육체 교섭을 해야된다는 말은 없다. “여자가 패권을 쥐면 너무 큰 혼란이 생긴다”(927)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앞에서 아내를 하느님보다 사랑하면 죄가 된다는 주장(859)과 모순된다. 남편이 하느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적 교섭을 하고 싶어할 때도, 아내는 남편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에게 진 빛을 갠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본당 신부가 여성에 대해서 한 말의 상호모순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편향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이런 균열은 헬렌 쿠퍼(Helen Cooper)가 지적하듯이, 남편과 어쩔 수 없이 동침하는 것(941)은 무역상의 이야기의 May에게는 별로 미덕이 될 게 없다(헬406)<sup>10)</sup>는 데서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 들리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 즉, exemplum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표방하는 sentence와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Pardoner의 이야기는 “탐욕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이 교훈이라고 Pardoner가 이야기하지만, 이야기 속의 세 난봉꾼이 죽은 것은 돈에 대한 탐욕이라기 보다는 죽음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비유적인 언어를 축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스 덕의 이야기에서도 바스 덕은, 이야기에서 늙은 노파가 말한 서로 존중하는 이상적인 결합을 강조하는 것

10) Helen Cooper, *Oxford Guide to Chaucer: The Canterbury tales*(Oxford: Clarendon, 1989) p. 406. 앞으로 이 책에서 인용할 때는 “헬”이라는 글자 뒤에 페이지 수를 표시하는 걸로 약칭하겠다.

으로 끝맺지 않고, 남편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는 말로서 끝맺고 있다. 이야기 속의 늙은 노파처럼 다시 젊은 여자로 변할 능력이 없으므로, 바스 맥은 이야기의 결론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며, 이야기 속의 결론과 이야기 밖의 결론이 불일치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바스 맥이 결국 인간 관계를 거래 관계로 파악하여 그 거래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점은, 바스 맥의 이야기 자체의 결말에선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과 화합을 얘기하는 것보다 어긋난다. 이야기와 이야기하는 사람의 거리 내지 불일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의 sentence라고 주장하는 바와 그 이야기 자체의 거리 내지 불일치와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들의 극적 맥락에 더욱 주의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켄터베리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현실의 모습을 일부 담고 있는 exemplum이 쉽게 관념적인 교훈인 sentence화되지 않고, 그렇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논리적 언어로 이야기의 의미를 규정짓는 과정에 상당한 폭력과 이데올로기의 압력이 잠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본당 신부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결합은 패터슨이 생각한 대로 단순히 사소한 실수들이 아니라, spiritual한 영역에서도 doctrine에 끼워 맞추는 sentence화가 불가능하며, 그 sentence화의 노력이 이데올로기의 폭력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본당 신부의 이야기 자체의 이런 문제점 외에도, 극적 맥락에서 본당 신부와 그의 이야기가 받게 되는 제한들이 있어 그의 권위를 떨어뜨린다.

먼저 본당 신부는 면책의 특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켄터베리 이야기*라는 극적 상황 속에 있는 한 등장 인물(character)임을 지적할 수 있겠다. 패터슨은 *켄터베리 이야기* 내의 다른 종교적인 sentence지향적인 인물들과 구별하여 tale-telling game 자체를 중단시키는 독보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작품 초기부터 Parson이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라는 점과, 죽음에 대한 테세우스의 훈시와 기사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표방하는 Custance를 얘기하는 변호사(The Man of Law)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과 가부장의 뜻에 복종하는 Grisilde를 얘기하는 대학생의 이야기(The Clerk's Tale), 그리고 남편에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길 즐기치게 권고하는 Melebee 이야기를 한 작중 초서의 이야기와 연계선상에서 sentence 지향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당 신부의 이야기가 그렇게 독보적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본당 신부의 이야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한 가지씩 이야기했으니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해보시오 라고 하는 Host와, 본당 신부의 이야기를 듣는데 동의하는 tale-telling game 참가자들의 동의라는, tale-telling game 규칙에 철저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다. 패터슨이 본당 신부의 이야기가 tale-telling game 게임 자체를 중단시킨다고 본 것은 그가 Host와 tale-telling game과 solaas 지향적인 성향<sup>11)</sup>을 동일시(패371)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ale-telling game에는 sentence 지향적인 흐름과 solaas 지향적인 두 흐름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루어져 온 것이지, solaas 일변도라고 보는 것은 협소한 의견이다. 본당 신부의 이야기도 결국 이 sentence 지향적인 흐름의 한 부분으로서 tale-telling game에 속하며, 다만 sentence 지향적인 추구가 fable적인 것을 억제하고 개념적인 언어에 의존하여 정확한 전달을 꾀하려하는 것이, 작중 초서의 Melibee 이야기를 거쳐서 본당 신부

11) *켄터베리 이야기* 속의 이야기들은 교훈(sentence)을 주는 데 치중하는 이야기와 즐거움(solaas)을 주는 데 치중하는 이야기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구별은 총서시에서 Host가 한 말(총서시 797-9)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룬 것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패터슨은 자꾸 본당 신부가 fable에 대한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tale-telling game을 불가능하게 하여 중단 시킨다고 하고 있지만(패376), 실제로 tale-telling game을 중단시키는 것은 tale-telling game 자체의 규칙이지 본당 신부나 본당 신부의 대안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tale-telling game 자체의 규칙에 따라 “이제 한 분만 더 이야기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Host에 의해서 이미 본당 신부의 이야기를 끝으로 tale-telling game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본당 신부가 막강하고 독보적인 권위로 tale-telling game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만약 tale-telling game이 그 규칙상 아직 끝나지 않게 되어 있다면, 본당 신부의 대안이 아무리 좋고 고매한 것일지라도, 그것 자체로 tale-telling game을 중단시킬 수 있기에는 너무 길고 지루한 것이라고 느낄 사람<sup>12)</sup>도 많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다시 게임을 시작할 것이다.

본당 신부가 속해있는 sentence 지향적인 인물들은, 그들의 근엄한 이야기와는 달리 인물 됨에서 상당한 결함이 드러나 있는 인물이 많다. 즉 그들이 sentence를 말한다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테세우스의 입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보인 기사(Knight)의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억지 숭고함을 보이고 있고, 변호사의 이야기에 나오는 Custance란 인물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짓혀두고라도 부동산을 사 모으는데 자기의 법률 지식을 잘 활용하는 인물이며, 의사 선생은 돈 쓰는데 지독한 구두쇠이다. 수녀원장(Prioress)은 예의범절 차리는 데서 기쁨을 찾고, 유태인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은 태연히 묘사하면서, 뒷에 걸려든 생쥐가 죽거나 피를 흘리면 슬퍼 울고, “몸소 기르는 몇 마리 개에게는” 중세 일반 민중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군 고기나 과자빵과 우유를 먹이는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은”(총서시143) 인물이며, 수사는 수도원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토끼 사냥을 즐기는 인물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하는 일 없이 강아지나 데리고 놀고 보석이나 챙기는 수녀원장, 사냥꾼 수사는 중세 풍자문학의 중요한 과녁이었다. 이런 sentence지향적인 이야기들의 화자들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총서시에서 기사와 본당 신부에게 작중 초서가 칭찬 일변도로 나갔다고 해서 본당 신부란 인물을 절대시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한 작중 초서도 결국 Sir Thopas와 Melibee의 이야기에서 실패를 보여준 작중 인물임을 생각할 때, 작중 초서가 본당 신부가 좋은 인물이라고 했다고 해서 본당 신부가 좋은 인물일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여기서 사냥꾼 수사나 강아지나 데리고 노는 수녀원장 등의 sentence 지향적인 인물들이 지닌 제한들을 독자가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도, 작중 초서는 이것을 제대로 포착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작가 초서와 작중 초서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부분 중 Lecherie에 대한 부분 역시 다른 목소리들에 의해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첫 부분에서 간음한 여자는 때려죽이고 돌로 쳐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데(838) 간통한 남자에 대한 얘기는 없이 기혼자 간음 얘기로 넘어간다. 간통엔 분명히 남자도 참가했을 거라는 것은 바스 맥(the Wife of Bath)이라면 짚고 넘어갔을 법한 부분이다. 그런데 본당 신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야 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이 지워져 있다. 이렇게 본당 신부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일부 드러나는 에필로그 부분이 지워져 있다는 것은, 교회 이데올로기가 다른 목소리들을 지워버리는 과정을

12) 아마 Host도 이런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의미심장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며, 본당 신부의 고지식한 원칙론을 통해서 작용하는 교리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 지운 목소리들은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극적 맥락 속에서 지운 자국으로서 여전히 살아 있으면서 본당 신부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들과 목소리들의 메아리를 상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운 목소리들은 그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극적 맥락에서 볼 때 지운 자국으로서, 본당 신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며 생생히 살아 있는 침묵의 웅변인 것이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을 지운 것은 sentence 만을 전달하겠다는 본당 신부의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며,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The Nun's Priest's Tale의 서문에서 Host가 한 다음과 같은 항변을 상기시킨다. “듣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 말하는 사람이 교훈(sentence)을 전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Whereas a man may have noon audience, / Noght helpeth it to tellen his sentence. VII3991-2). 물론 교구 목사의 이야기가, 작중 초서라는 신자를 확보한 만큼, 수사의 이야기 보다는 더 흡인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교회와 권위의 목소리를 위해 다른 청중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점은, 청중 입장 배제가 수사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이루어졌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폭력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다. 더구나 교구 목사의 이야기의 주제가 중세 시대에 교회가 교회의 목소리와 권위로 다른 목소리들을 배제하거나 종속시켰던 주요 기제인 고해라는 것이기에, 이런 목소리의 지운이라는 현상은 더욱 불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만한 점은 본당 신부가, 여자가 성직자와 간음한 경우에 성직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는 별로 상세히 말이 없는데, 성직자와 간음한 여자는 “뉘우칠 때까지 모든 기독교 심판소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다(891-903). 이점은 이 부분의 바로 앞에서 예수가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는 부분과도 상충된다. 예수는 뉘우치거나 뉘우치지 않거나 간에 사랑으로 대했는데, 본당 신부는 간음한 성직자의 벌에 대해선 어물쩍 넘어가고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는 혹독한 것이다. 오히려 그 별로 따지자면, 순결을 맹세하지도 않은 여자보다 순결을 맹세하고 그 댓가로 여러 특전들을 누리고 있는 썸인 성직자들의 간음에 대한 벌이 더 혹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제 계급의 위선과 부정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지 않았던가? 청지기의 이야기에 나오는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신부의 딸이었듯이 당시 신부의 축첩(蓄妾)은 이미 흔한 일이었다.<sup>13)</sup> 이렇게 만연된 부패에 대해서 본당신부가 소극적인 것, 즉 성직자가 받을 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본당 신부의 지위나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간음이나 비리에 대해 혹독하게 꾸짖지 못하는 나약함과 비겁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당 신부에게는 권위에 대한 기묘한 비겁함이 있고, 약자에 대한 혹독함마저 있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본당 신부 이야기 식의 논리를 조금 과장하자면, 성직자와 놀아준 여자는 혹독한 벌을 받고, 여자와 놀아난 성직자는 교회의 재산의 특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껏해야 교구민들이나 버려놓는 벌(?)과, 자기 기도가 아무 소용도 없어지는 벌(?)을 받으면서 계속 땡땡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청지기의 이야기(The Reeve's Tale)에서 이런 신부는 자기 딸이 귀여워서 모든 성당의 재산을 딸에게 주려고까지 한다(I(A) 3985-6). 요컨대 본당 신부 이야기의 논리대로 당시

13) *캔터베리 이야기 I*, 김진만 역(동서문화사, 1978) p.140 주석.

14) 이런 점은 앞에서 본당 신부가 피력한 편협한 문학관과 함께, 본당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조되고 심지어 반대되기까지 하는 인물로 보이게 하는 면이 있다.

의 교권에 충실히 복종하는 것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는 중세 교회의 부정과 비리를 교정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과 비리를 더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면에서 본당 신부는, 영혼의 구원을 빙자해서 고해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계속 강화함으로써, 당대 교회 조직의 부패를 지속 내지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혐의 역시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면들은 총서사에서 작중 초서가 본당 신부는 “고집 센 사람이 있으면, /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반드시 호되게 꾸짖어주곤 했다”(총서시521-3)란 말도 아이러니컬하게 들리게 하고 있다. 즉 본당 신부는 죄를 고집하는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호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집하는 성직자를 빼고, 성직자 아닌 계급의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호되게 꾸짖는다는 점, 본당 신부에 대한 작중초서의 찬탄을 작품 전체 맥락인 작가 초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들리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결국 본당 신부의 이데올로기는 기독교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인데 이중 가부장제의 폭력성은 앞의 화자들의 이야기에서도 누차 드러난 것이다. 변호사의 이야기에 나오는 Custance가 받는 고통, 학생의 이야기(The Clerk's Tale)에 나오는 Grisilde에 가하는 남편의 폭력성, 특히 의사의 이야기에서 못된 재판관에 대항할 생각은 전혀 없이 체제에 순응하면서 자기 딸을 가문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자결할 것을 강권하는 아버지에게 희생당하는 딸이 그 예다. 이런 죄 없는 사람들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에 당하는 수난은 그때마다 화자에 의해서 기독교적 섭리로 정당화되는 점을 생각할 때, Helen Cooper가 지적했듯이, divine Providence에 대한 모든 질문을 버리라고 하는 말(500-1)은, 죄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고통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헬406). 다시 말해서, 앞에서 죄 없는 여자들이 당하는 가혹한 고통과 불행에서, 그 이야기들의 화자들이,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기독교적 합리화를 하는 것을 보아온 우리로서는, 본당 신부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기독교와 가부장제의 기묘한 야합에 미심쩍은 시선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영적인 권위로 주도하는 것이, 두 번째 수녀의 이야기(The Second Nun's Tale)에 나오는 세실리아의 경우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헬406)는 점도 본당 신부 이야기의 모순을 드러내주는 예다.

본당 신부의 이야기에는 당대 지배층들이 아랫 사람을 함부로 착취해선 안된다고 하며,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죄이지 출신이 아니라는(756) 이야기처럼 긍정적으로 보아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나, 그런 이야기 속에도, 앞에서 누차 얘기되어온 본당 신부 이야기의 이데올로기성과 관련지어볼 때, 고해와 죄라는 장치를 통해서, 중세인들을 세속의 지배에서 빼내어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의 지배에 종속시키려는 지배욕이 그 이야기의 이데올로기 속에 내재해 있지 않나 하는 혐의 역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설사 본당 신부에게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가 교회의 이데올로기 내에서 담론을 구사하는 한 그 이데올로기의 도구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당 신부 이야기는 자체 모순이 있는 불완전한 이야기 일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된 수많은 예에서 반박과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임을 작가 초서가 보여주고 있고, 권위에 약하고 순진무지한 작중 초서의 한계 또한 작자 초서가 드러내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캔터베리 이야기 중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부분”을 철회(retracciouns)하는 것이 작가 초서가 아니라, 결국 작중 초서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의 “모든 쓰여진 것이 교훈을 위해서 쓰여졌듯이” 본당 신부 이야기를 쓴 작중 초서의 “의도(myn entente(1083))”

또한 그러했다고 할 때의 그 의도는, 작품 내에서는 작중 초서의 의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5) Sir Thopas와 Melibee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적 즐거움의 전달에도 실패하고, 교훈 전달에 실패하는 작중 초서의 이야기꾼(teller)으로서의 한계를 본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철회에서 본당 신부의 이야기에 순진하게 감화 받는 작중 인물 초서의 한계가 은근히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것에 별 무리가 없다. 작중 인물 초서는 그의 *캔터베리 이야기*를 모두 sentence에 종속시키고 그 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은 철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의 철회 역시 *캔터베리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일정 부분 철회 내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그의 철회 역시 작품 내의 극적 정황이란 제약을 받는다. 그렇게 볼 때, 본당 신부의 이야기류의 이야기에 전염된 사람이 당대 종교의 관점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려고 시도하는 데서, 교리에 맞지 않는 현실의 부분을 잘라내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강행하려는, 당대의 종교적 현실관의 독단성과 폭력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 속을 살아가던 인간 초서가 노경에 처하여 회개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 15) 여기서 바울이 말한 “모든 씌어진 것”을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로 보고,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도 결국 바울의 말에 따르면 교훈을 위해서 쓰인 것인데, 철회를 한다고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M. Keith Booker, “Postmodernism in Medieval England: Chaucer, Pynchon, Joyce, and the Poetics of Fission,” *Exemplaria* 2(1990): 564-94면과, Peter W. Travis, “Deconstructing Chaucer’s Retraction,” *Exemplaria* 3(1991): 135-58면 참조)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데는 문제가 많다. 우선 이 철회의 첫머리 이야기는 본당 신부 이야기라는 “자그마한 논설(this little tretys or rede 1081)”에 대한 작중 초서의 辨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가 다 논설인 것이 아니며, 더구나 “자그마한 논설”인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말은 일차적으로 “성경에 씌어진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씌어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모든 쓰여진 것이 교훈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작중 초서가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쓰여진 것이 교훈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자신의 의도였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1080-83행까지는 작중 초서가 성경의 “모든 씌어진 것”은 교훈을 위해서 쓰여졌듯이 이 본당 신부 이야기도 교훈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그 교훈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면 미안하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앞뒤 문맥상 자연스럽다. 즉 작중 초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밀고 나가 교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자기 작품들이나 작품의 부분들을 철회하고(1084-7), 자기가 쓴 것 중, 교훈을 전달하는 데 충실했다고 보는 *철회의 위안*의 번역이나 성인전, 설교, 도덕적인 훈화나 신앙의 글 등은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1088-91). 결국 작중 초서는 자기 작품 중에서 본당 신부 이야기의인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갈라서, 본당 신부 이야기적이지 않은 부분을 철회하고 있는 셈이다. *캔터베리 이야기*도 다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이야기들”만을 철회하는 것이다. 작중 초서가 *캔터베리 이야기* 중의 일부분인 본당 신부 이야기를 철회할 리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작중 초서는 아마,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두번째 수녀의 이야기(The Second Nun’s Tale)” 같은 이야기도 본당 신부 이야기적인 부분에 포함시켜 철회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그리고 설사 “모든 씌어진 것”이 초서의 작품 전체를 지칭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작중 초서는 자신의 “모든 씌어진 것”이 교훈을 위해서 씌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씌어진 것”은 본래 교훈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것이 자신의 애초의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즉, 작중 초서는 자기의 모든 작품들을 쓴 애초의 의도가 교훈을 위해서였는데, 재주가 부족해서 그런 의도를 살리지 못했다면 미안하며, 작중 초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교훈을 위해서 쓴다는 의도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들 — 즉 본당 신부 이야기적이지 않은 부분들 — 은 철회하고, 그런 의도를 살린 부분은 철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작중 초서의 앞 뒤 선언 사이에 모순이 없다.

심은 심정이 retracciouns을 하는 작중 초서로 나타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 초서가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기에는 이미 작품은 너무나 넓은 영역이 되었고, 인간 초서 역시, 작중 초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한 속에서, 작품 속에 들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작가 초서와 인간 초서의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노경에 처한 인간 초서는 회개와 교리 일변도로 나갈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작가 초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 철회가 인간 초서에게서도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인간 초서가 정말로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켄터베리 이야기* 속의 이야기들을 철회하고 싶었다면, Virgil이 자기 작품을 파괴하려 했듯이, 그런 이야기들이 삭제된 *켄터베리 이야기* 판본을 만들었을 터인데, 인간 초서가 그런 노력을 실제로 보였다는 기록은 없다. 즉 이 철회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 초서의 철회일 수는 있지만, 인간 초서의 철회인지는 대단히 의심스런 일이다. 철회 역시 작품 속의 특정한 극적 맥락을 보이는 fiction으로서 작품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 초서의 정치적인 입장 역시 작용했을 것이다. 생전에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초서는 당대를 주도하고 있는 지배 담론들 앞에서 자기 작품을 변호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철회라는 당대의 문학적 관습을 이용하여, 할 이야기를 다한 다음에 나오는 이런 의미심장한 철회가 된 것이다.

조달계(Manciple)의 이야기에 나타난 Phebus에 당하는 까마귀의 입장은 철회하는 작중 초서의 일면이기도 하다. 까마귀는 Phebus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알면서 당하지만, 작중 초서는 본당 신부의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제대로 모르고 당하는 듯하다는 차이는 있지만, 까마귀와 작중 초서 둘 다 폭력에 의해서 현실이 왜곡되는 과정의 희생자라는 점에선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작가 초서는, 다른 이야기들과 이야기꾼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극적 맥락을 통해 교회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고, 이 부분에서도 철회하는 작중 초서의 모습을 통해, 교리에 안 들어오는 현실의 부분을 잘라버리는 교회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기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 현실을 지우는 폭력성에 대한 까마귀의 앎을 공유하고 있다할 것이다. 조달계의 이야기에 나오는 까마귀는 작중 초서와 작가 초서의 양면을 띠고, 본당 신부 이야기 앞에 의미심장하게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화자들보다 압도적으로 기나긴 본당 신부 이야기를 들었을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낼 에필로그 부분이 지워져 있다는 것은, 자기 이데올로기가 담지 못하는 현실의 다른 부분을 드러낼 다른 목소리들을 지워버리는 교회의 폭력성이, 또다시 침묵 속에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sup>16)</sup> 본당 신부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작중 초서가 굳이 철회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순례객들의 반응이 본당 신부의 이야기에 공감적이었으면 그들의 반응을 지웠을까? 다른 순례객들의 반응이 본당 신부 이야기에 공감적이었다면, 작중 초서가 철회하는 자기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순례객들의 반응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많다. 다른 sentence지향적인 화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순례객들의 반응은 거의 다 빠짐없이 나오는데, 유독 여기서 이 기나긴 이야기를 들은 순례객들의 반응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그 지음 속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억압하여 단색의 목소리로 통일

16) 순례객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부분이 지워진 것은 본당 신부가 한 것이 아니라 초서가 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작중 초서가 이 부분을 지운 것도 결국 본당 신부의 목소리에 감명되어서 그런 것일 터이므로, 결국 작중 초서를 통해서 작용하는 본당 신부의 이야기의 이데올로기가 순례객들의 반응을 지워버린 것이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시키는 교회의 폭력적 권위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Phebus에게 당하는 까마귀의 모습에는 목소리가 지워지는 순례객들의 모습도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당 신부 이야기가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우리는 본당 신부 이야기가 다른 목소리들과 겹치는 메아리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다른 목소리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 역시 담당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패터슨과 헬렌 쿠퍼(Helen Cooper)가 지적했듯이, 본당 신부 이야기는 다른 인물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바스 태의 주도권에 대한 집착과 승마를 즐기는 수사, 음식 좋아하는 향반, 특히 sex에 대한 January의 관점(The Merchant's Tale 1446-56, 1838-40)은 본당 신부의 설교에서 비판의 과녁이 되고 있다(헬406). 본당 신부의 기독교적 관점이 이들의 세속적 행동을 비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서의 철회에도 양면성이 있다. 세 초서의 불일치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 초서와 작중 초서와 인간 초서의 입장이 서로 겹치는 부분인 영적 순례에 대한 관심, 즉 sentence 지향축에의 관심도 있는 것이다. 캔터베리 이야기를 꿰뚫고 있는 두 가지 지향축 내지 *캔터베리 이야기*란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는 영적(spiritual) 지향축 내지 교회적(ecclesiastical), 교훈적(sentence) 지향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캔터베리에로의 순례에 영적 순례의 측면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종교적 지향축은 세속적 지향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세속적(secular) 지향축 내지 *solaas* 지향축으로서 캔터베리에로의 순례에 관광단의 유람이라는 성격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당 신부의 이야기와 초서의 철회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흥미위주의 성향으로 흘러버린 감이 없지 않은, 이전까지의 여행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없지 않다. 본당 신부 이전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이 너무 *solaas*에 치우친 바도 있는 것이다. 조달계의 이야기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그 이야기의 서시의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누고 말에서 떨어지는 요리사는 *solaas*의 축제에 너무 취해서 영적으로 아무런 방향성도 없는 삶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는 것이다(패377-8). 조달계의 서시와 이야기는 이런 면에서, sentence가 *solaas*에게 던지는 경고이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의 폭력에 당하는 까마귀의 예에서 보이는 sentence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는, 양날이다. 그런데 이렇게 *solaas*쪽으로 기운 상황은 이때까지 sentence쪽의 인물들에 결합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sentence지향적인 이야기를 한 인물들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거의 다 윤리적 결합이 있고, 이야기꾼의 이런 윤리적 결합들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세속적 관점에 대한 비판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야기가 아무리 세속적 관점을 비판하고 있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꾼이 세속적이라면 이야기 자체의 비판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윤리적 결합은 적은 가사는 이제 방앗간 추인의 이야기와의 관계에서 암시되듯이, 기사도 시대는 몰락하고 있다는 시대사적 한계에 봉착해 있고, 혼자서 두 축의 균형을 잡기엔 역부족이다. 이렇게 *solaas* 축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비록 인식과 통찰력, 문학관, 언어관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비교적 하자가 적은 본당 신부가 긴 논리적 설교를 통해서 *solaas*지향적인 화자들에게 일부 유효한 비판과 제한을 가함으로써, 캔터베리로 가는 순례에 영적 비중을 일부 회복시켜 *solaas*와 sentence의 두 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셈이다. 이렇게 본당 신부가 등장하는 타이밍을 절묘하게 조절함으로써 두 축의 균형을 잡아가는 데서 작가 초서의 탁월함 또한 볼 수 있다.

앞에서 보아 온 대로 본당 신부의 서사에서 그의 이야기가 작중의 tale-telling game의 연속으로서 작품의 극적 맥락 안에서 의미를 지니고, 본당 신부의 이야기에서는 그 이야기 자체에 상당한 균열이 내재하며, 완벽하고 절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이야기한 사람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는 fiction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이라는 신화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당대 기독교적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는 fiction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본당 신부의 이야기는 이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아닌 상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이란 의미는 본당 신부의 목소리가 작중에서 다른 목소리를 제한하고 다른 목소리들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본당 신부의 이야기는, 패티슨이나 헬렌 쿠퍼도 지적하다시피, 작품 내의 다른 목소리들과 겹치면서 다른 목소리들을 제한하려는 비판적인 기능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신부 이야기에 대해서 작가 초서는, 그 부작용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spiritual한 지향축의 한 표현으로서 ecclesiastical한 지향의 정열과 열의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는 셈이다. 거기에 대한 방증 가운데 하나가 본당 신부 이야기의 엄청난 분량이다. 이 정도의 긴 이야기를 여러 자료의 개작을 통해서 꼼꼼히 해냈다는 것은 비상한 영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 III

이상에서 우리는 작가 초서와 작중 초서와 인간 초서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하고, 이 거리에 유의할 때, 본당 신부 이야기와 초서의 철회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으며, 작중 초서의 철회에는 dogma에 안 들어오는 부분을 잘라버리는 종교의 폭력성이 내재하고 있고, 종교의 도그마의 허구성을 직시하는 작가 초서의 시선이 여전히 건재함을 알 수 있다. 본당 신부 이야기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의견은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극적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인 것은 아니다. 즉, 본당 신부 이야기의 절대적 위치가 제거된다고 해서 초서가 세속적 관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solas 중심의 이야기들 역시 본당 신부의 이야기에서 정점에 이르는 sentence지향적인 이야기들에 의해서 상대적인 위치에 자리잡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축은 결국 현실의 양면이며, 초서는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이 양 축의 어느 하나에도 얽매이지 않는 균형 잡힌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양 쪽 지향의 이야기들이 다 sentence화에는 실패하고 있음은 현실이란 것이 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독점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 초서의 뛰어난 점은 이 두 극단적인 목소리 중 어느 것도 삭제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동적인 상호제한 속에 놓음으로써, 두 극단적인 입장들이 서로에게 제한을 받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역동적인 역사로 형성되고 있는, 당대 현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데 있다. 작가 초서는, 작품의 극적 정황적 맥락을 통해서 한 목소리 안에 여러 목소리들을 병치시킴으로써, 성속(聖俗)의 여러 이데올로기들을 상호제한을 시키고, 이를 통해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당대의 현실상을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작가 초서는 이데올로기가 상호 제한 속에서 상대적으로 형태 지워지는 움직임의 현실태(reality)를 절묘하게 포착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패티슨이 언급한 네 입장을 다시 볼 때, (1)의 입장은 본당 신부 이야기의 상대성을 간과한 입장이며, (2)의 입장은 *캔터베리 이야기*의 앞부분에서부터

sentence 중심의 이야기들 통해 본당 신부의 이야기의 경향성을 띤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왔음을 간과한 것이고, (3)의 입장은 극적 구조에 유의한 점은 좋으나 캔터베리 이야기의 두 축 중 한 축을 담당해온 흐름의 연장선상으로서의 본당 신부 이야기의 도덕적 비중을 너무 폄하시킨 것이며, (4)의 입장은 본당 신부 이야기가 전기적이지만은 않은 극적 의미와 비중이 있고, 초서의 철회에도 영적 관심과 진지함 역시 담겨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